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승천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31권 28호(가해) 2011-6-5

[묵상]



갈릴래아에서 시작된 복음 선포,
수난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신 예수님,
땅 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어
구름에 감싸여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그 때만의 주님에서
저희들의, 영원하신 주님으로
아니 계신 곳 없이 계시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세상 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하늘만을 쳐다볼 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이 땅에서
당신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잘 지키고
모든 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당신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의
증인이 되려 하오니
온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소서. - 櫃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 요 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 요 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 요 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 요 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 요 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 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빈첸시오회 ● 울프레아 ●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권순봉 요안나, 오제문 (생)김지향 엘레나, 김민석 시몬, 송민영 보나, 권승오 안토니오, 문계원 클로틸다, 곽수민 히메리오, 이범주 다니엘
주 일 낮 미사	(연)이덕철 루까, 김석돈 요셉, 이숙자 루피나, 지용애, 고준희 제임스, 박송희, 엄익찬 안토니오, 김종환 야고보, 김원태 다미아노, 신태동 요아킴, 임규호&임승자, 민소에 모니카, 엄은섭 도로테오 (생)첫영성체어린이들, 장영우 엘리사벳, 박다빈 이레네, 박세빈 이베타, 최부경 아그네스, 김영길 안드레아,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글라라, 손미나, 문발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Apostles) 1,1-11

화답송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임금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여좌에 앉으신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1,17-2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8,16-20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2	172	172
봉헌	172	268	268
성체	391	309	280
파견	172	165	165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생명의 복음을 위한 봉사

그러므로 부모의 의무에 관해서 참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주도록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자발적 활동들이 자리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 도시, 주거, 사회사업 정책들 역시 다시 재고하여 노동 시간표를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시간을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1). 오늘날 생명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에서 중요한 한 부문은 인구 성장 문제이다. "인구수의 향방을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공권력의 의무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항상 부부와 가정의 우선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의무를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무고한 인간 존재의 권리를 비롯해서, 인격과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출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피임, 불임 수술, 낙태 등과 같은 방법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조장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인구문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여러 다양한 국제기관들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사회적, 공적인 보전과 문화의 여건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혼인한 부부들은 완전한 자유 안에서, 진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출산에 관계된 문제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제 기구들은 "부에 대한 더 많은 기회와 더 공정한 분배를 이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창조된 물건들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품들을 참되게 공유하고 나누는 경제를 모든 국가적, 국제적 질서 안에서 건설함으로써 찾아야 한다." 이것이 개인과 가정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민족들의 진정한 문화 유산을 존중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에 대한 봉사는 무한하고도 복합적인 임무입니다. 이러한 봉사는 다른 교회, 다른 교단들의 형제자매들과 긍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치있고도 유익한 분야로 점차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권위를 가지고 권장한 실제적인 교회 일치 운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종교 신자들과,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만이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임무이며 의무입니다. 제삼천년기의 문앞에 서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도전은 무척 힘든 도전이다. 생명의 가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노력만이 문명화에 대한 예견할 수 없는 방해물을 예방할 수 있다. (◆계속)

하늘은 어디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9)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아니 하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늘! 하늘이 무엇일까?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 땅에서 있는 사람한테 하늘은 머리 위에도 있고 오른편에도 있고 왼편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마침내 아래에도 있는 것이다. 지구가 둥글다면 하늘은 땅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다... 하늘은 어떤 형체를 갖추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 건 아니다.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있는 것, 하늘은 그런 것이다.”

하늘에 대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앞에 뒤에 위에 아래에 좌우에 온 세상 가득 찬 모든 것의 안팎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오르셨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주선처럼 우주 하늘 위로 날아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머리위 저 꼭대기 어딘가로 공간적인 장소를 이동하여 올라가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늘은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더 이상 때와 장소에 간혀 계시지 않는 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본모습으로 되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마르 16,19)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이 오르셨던 하늘, 그 하늘나라 역시 어떤 장소나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혹은 단순히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막연한 생각 속에 있는 피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현실과 연결된 아주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실천되는 곳에 하늘나라가 있으며 그곳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할 때, 서로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에게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윤희 스테파니아	신덕레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팅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김금자 테레사
제물봉헌자			첫영성체 어린이들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6월
예수
성심성월

◆ 첫영성체 축하합니다.

오늘 주일(5일)은 백삼위 주일학교 학생들의 첫영성체 예식이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이제 오늘을 기해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를 받아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성사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특히 부모님과 대부모님들은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첫영성체 예식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다시한번 축하를 보냅니다. 세례자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7명입니다.

- 첫영성체 대상자 : 손 보나, 이 요한, 최 아그네스, 키타모토 미카엘라, 김 (폴린)베로니카, 박 이레네, 정 라이언, 김 크리스티나, 황 요셉, 이 클라라, 이 사무엘, 김 헬레나(세레), 김 스틸라, 김 (승미)베로니카, 고 수산나, 김 정하상바오로, 전 안젤라메리치(세레)
- 첫영성체 예식 : 오늘 주일(5일) 낮11시 미사중
- 축하식 : 낮미사 후 강당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일미사와 함께 있었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회원모집과 도네이션에 참여해주신 백삼위 본당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최용훈 요셉 신부 -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성경 퀴즈대회

- 일시 : 6월12일(주일) 오후 2시
- 범위 : 루카복음, 전례상식, 성가 알아맞추기
- 게임방식 : Jeopardy 방식의 30문제
- 팀구성 : 6구역(토런스 동,서,남,북, 하버/카슨, PV)
- 선수구성 : 구역대표선수 최대 7명 선발 가능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배론청년회장 ☎(310)650-6057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야의 십자가의 길' 조성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신자들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야의 십자가의 길'을 성모상 주변에 조성하여 본당의 날인 9월18일 경 봉헌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단체와 개인의 봉헌을 기다립니다. 현재 7개 단체가 봉헌했습니다.

- 단체봉헌 마감 : 6월30일
- 개인봉헌 : 단체봉헌 마감 후 *문의 : 본당 신부님

◆ 백삼위골프토너먼트

- 일시 : 6월11일(토), 티오프 낮 12시(11시20분까지 집합)
- 장소 :레이크우드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도 총무 ☎(213)272-3598

◆ 주일학교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행사일정 : 6월12일(주일학교 종업식날)
- 한국학교 은총시장도 같은 종업식날 열립니다.

◆ 유아세례 신청

- 일시 : 6월25일(토) 오후 6시
- 대부 대모를 정하시고 세례식에 꼭 함께 참석하십시오. (당일 5시50분까지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 세례 신청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1주일전까지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 한국의방선교회 선교지 체험단 모집

- 체험지 : 파푸아뉴기니(인도네시아 인근)
- 모집인원 : 5명(가톨릭신자 또는 비신자)
- 기간 : 7월27일~8월4일(6월30일까지 신청)
- 경비 : 개인부담 \$2,200 예상 *문의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한창주 요아킴☎(310)530-7702

◆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6월3일 현재집계 총 198,250단

- 토런스 동구역 : 30,518단 ● 토런스 서구역 : 37,590단
- 토런스 남구역 : 13,344단 ● 토런스 북구역 : 14,374단
- 하버카슨 구역 : 39,803단 ● P.V.구역 : 49,317단
- 기타 : 13,304단 ▶총19만8천250단(66.1% 달성)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6월5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6월12일(주일) : 토런스 남2/3반(콩나물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김성현 김영길 김 용 김일선 김정희 김종문 김주량 박근식 박정자 박정희 박종우 박진수 박현주 양영관 오수인 유경자 유선식 이병우 이상규 이석진 이윤무 임한나 장영진 장정진 장춘수 전동훈 정열모 정훈모 최미열 최태훈 추서희 한금순 박제이콥	합계 : \$3,820
미사헌금 : \$2,462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김성현 김 용 김일선 김종문 김주량 박정희 박종열 박현주 양영관 오수인 유경자 유선식 이병우 이상규 이윤무 이일길 임한나 장정진 장춘수 전동훈 정열모 정훈모 최미열 최태훈 한금순 박제이콥	합계 : \$2,350
감사헌금 : 윤석구		

주일학교 소식

서머캠프

- 일시 : 6월24~26일(금,토,일) 금요일 오전 9시 성당집합
- 대상 : 3학년~12학년(신청마감했습니다.)
- 장소 : 카추마 레이크(샌타바바라), 텐트에서 숙식
- 준비물 : 슬리핑백, 수영복, 모자, 운동화, 슬리퍼, 여벌옷, 재킷, 선블럭, Insect Repellent, 타월, 주일헌금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일시 : 7월29일(금)~31일(주일), 금요일 낮12시 성당집합
- 참가비 : \$205
- 접수 : 주일학교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남가주 소식

고재용 교수, 주일학교 학생대상 첼로 레슨

- 지도교수 : 고재용 베드로(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석박사, 부산 동아대교수, 첼로/바이올린 교재46권 출판)
-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녀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 성격과 신체조건에 따라 악기선택을 권해드립니다.(그룹지도 가능) * 문의 ☎(213)550-6203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 상영영화 : 스트레이트 스토리(The Straight Story)
- 일시 : 6월11일(토) 오전 10시~오후 2시(작품감상/나눔)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피정비 : \$20(간소한 김밥제공) ☎(310)245-7919

남가주 M.E. 골프대회

- 일시 : 6월21일(화), 낮 12시 등록, 티오프 오후 1시
- 장소 : 리버사이드 Oak Quarry 골프클럽
- 진행방식 : 샷건플레이
- 회비 : \$100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213)272-3598

제4회 2011 FIAT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3일(목)~26일(주일)
- 장소 : 성토마스 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참가비 : 본당 후원
- 대상 : 주일학교 교장 및 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가톨릭 음악동호회 유빌라테 제5회 정기 연주회

- 일시 : 6월25일(토) 오후 7시
- 장소 : 세인트 빈센트 성당(621 W. Adams Bl. LA)
- 1부 : 미사집전(전홍식 요아킴 신부)
- 2부 : 라틴성가 발표 *문의 : ☎(310)634-9631 민원희 안나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415-0034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김양금 안나 518-3041 6/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문지숙 엘리사벳 800-5612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레오 328-1817 6/17(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명렬 라파엘 374-1572 6/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최은경 카타리나 650-3134 6/13(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25	김화수 율리아나 433-9075 6/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415-0034	임진희 한나 720-7898 6/8(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안희정크리스티나 750-4051	오태환 바오로 750-4051 6/1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복희 로사리아 920-4720 6/10(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6/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오영섭 스테파노 748-7323 6/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오석만 사무엘 750-6007 6/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식 크리스토퍼 377-7063 6/1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영희가보라 프란체스카 544-1009 6/27(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성전
-------------	-----------

다음 주 단체 모임

주일학교/한국학교 종강식	미사 후 은총시장
---------------	-----------

2011년 제45차 홍보주일 담화문(요약)

디지털 시대의 진리, 선포, 참된 삶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45차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 인터넷의 등장이라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체들이 제공하는 가능성에 대한 경탄을 자아내는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성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터넷의 뛰어난 잠재력과 그 폭넓은 활용을 접할 때 특히 분명해집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개인과 인류 전체의 온전한 선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 전달은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몇 가지 전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소통의 일방성, 자기 내면세계의 일부만을 전달하려는 경향, 자칫 자아 도취에 빠질 수 있는 자기허상을 만들어낼 위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젊은이들이, 열정과 호기심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려는 이들 특유의 온갖 고뇌와 도전과 창조력을 지니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겨난 디지털 광장에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를 맺고 자기 인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처신뿐 아니라 진정한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평행 세계로 도피하거나 가상 세계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위험들만 조심한다면, 오히려 이 가상공간 안에 있는 것이 다른 이들과 인격적 만남을 진정으로 추구한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상공간 안에서 나눔, '우정'을 추구한다면 진실하고 충실해야 하지만, 공적인 '개인 신상'을 조작하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공간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 주고, 그렇게 하여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위험들을 깨닫고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 신세계에서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홀해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닌 '다른' 세상에 몰두하여 우리 관심이 흩어지고 현실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참으로 깊고 지속적인 인간 관계를 키워 나갈 시간이 있습니

까? 우리는 가상 세계의 만남이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서 직접적인 만남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야 합니다.

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선포는 여러 미디어 제품에 종교 콘텐츠 도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는 또한 자신의 디지털신상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온전히 복음에 부합되는 선택과 선호와 판단을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새로운상황 안에서 새로운 표현 형태를 통하여, 자기가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하도록 다시 한 번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1베드 3,15 참조).

디지털 시대에 복음을 증언하는 활동은 복음 메시지가 웹의 전형적인 어떤 논리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하려는 진리의 가치는 그 '인기'나 관심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는 웹의 가상공간에서 선포된다고 하여도 언제나 현실 세계 안에서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형제자매의 실제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언제나 신앙 전수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충분한 지식과 책임감을 지닌 창조력으로, 디지털 시대가 가능하게 해 준 관계망에 동참하기를 권유합니다. 웹은 새롭고도 한층 더 복합적인 지성적 정신적 지평, 곧 새로운 형태의 공동 의식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고 인류와 역사의 구원자이시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완성된다는(에페 1,10 참조)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는 관계와 친교와 의미를 향한 인간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참된 응답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확신을 증언함으로써, 웹이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작하려 하거나, 힘있는 자들이 다른 이들의 의견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디지털 분야에서 젊은이 여러분들이 활약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하느님께서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에게 힘을 주시어 그들이 언제나 양심적으로 전문가다운 의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젊은 이들의 수호성인이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전구를 통하여 기도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교황 강복을 보내 드립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